

세계사를 뒤바꾼 ‘지도의 힘’

인류의 세계관과 가치관 전환시키는 기폭제 역할...

〈곤여만국전도〉는 중국과 한국의 근대의식 형성에 기여해

권동희 | 동국대 지리교육과 교수

지도는 미지의 세계를 알려줌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공간인지 능력’을 심어준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콜럼버스의 예에서 보듯 지도는 세계사를 뒤바꾸기도 하고, 한 국가의 근대화 과정에서 세계관과 가치관을 전환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기도 했다.

지도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지도는 미지의 세계를 인식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지도를 보는 사람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이는 지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공간인지 능력’이다.

공간을 인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와 타인의 위치 관계를 상대적으로 파악한다는 개념이다. 새로운 세계를 먼저 인지한 사람들은 지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준다.

아메리카 대륙 발견의 계기가 돼

콜럼버스는 1474년 이탈리아의 의사이자 천문·지리학자인 토스카넬리(1387~1482)에게 지도를 하나 선물받았다. 이 지도에는 당연히 현재의 아메리카 대륙은 표시돼 있지 않았다. 토스카넬리는 이 지도를 제작할 때 프톨레마이오스의 자료를 이용했는데,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의 크기를 실제보다 작게 계산했고,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대륙의 동서간 거리는 지나치게 멀리 표현했다. 토스카넬리는 리스본에서 아시아 동쪽 카타이(Cathay, 北支那)의 킨사이(杭州)에 이르는 거리를 경도 130도 정도로 책정했는데, 이는 실제보다 100도 정도 짧은 거리였다.

토스카넬리의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던 콜럼버스는 아프리카 서안에서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를 하면 동쪽을 돌아 육로를 통해 인도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확신하고 ‘서쪽 항해’를 결심했다. 그 결과 1492년 그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신대륙 아메리카에 발을 딛게 된다. 고의든 실수든 잘못 표시된 지리정보는 그 지도를

보는 사람에게 예기치 않은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도는 한 국가의 근대화 과정에서 새로운 문물을 도입하고 세계관을 바꿔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6세기 말,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동양으로 진출한 서양의 선교사들은 서양의 문물을 소개하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맡았다. 이들 선교사들에 의한 문물 전래는 특히 중화적 세계관에 젖어 있던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이어 16세기 말~17세기 초에 걸쳐 지도가 조선으로 들어왔는데, 마찬가지로 조선인들의 세계관을 넓히고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 시기가 바로 우리나라의 근세(近世)가 시작된 시점이다.

중국인의 세계관 뒤흔든 〈곤여만국전도〉

서양 선교사들의 서양 문물전래는 그들이 중국에서 직접 제작한 세계지도와 지리서를 통해 이뤄졌다. 그 시초가 된 것은 마테오 리치(1552~1610)로서, 그가 만든 〈곤여만국전도〉는 중국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다.

〈곤여만국전도〉는 전 세계를 한 도면에 나타낸 타원형의 세계지도로서, 대서양을 중심에 놓고 그리던 당시 유럽의 지도와는 달리 중국이 중앙에 오도록 위치를 바꿨으며, 지명도 모두 한자로 표기해 놓았다. 지금도 일부에서 사용되는, 유럽을 의미하는 ‘구라파’(歐羅巴)라는 지명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며, 그밖에 아시아는 ‘아세아’(亞細亞)로, 아프리카는 ‘이미아’(利未亞)로 표기해 놓았다.

〈곤여만국전도〉를 통해 중국인들은 경·위도를 이용한 지도제작법을 알게 됐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됐다.



지도는 한 국가의 근대화 과정에서 세계관을 바꿔 놓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사진은 중화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뒤바꾼 <곤여만국전도>.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원나라 초엽 아라비아에서 지구의(地球儀)를 수입하면서 소개됐으나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인정하는 사람들도 극히 적었다.

중국에서 제작된 <곤여만국전도>는 1년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 지도는 당시 조선인들의 가치관을 크게 바꿔놓았다. 즉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세계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깨닫게 했고 학문적 시야를 크게 넓혀줬다.

천원지방설에서 지동설로의 인식 전환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도를 최초로 소개한 이수광(1563~1628)은 《지봉유설》에서 “구라과는 서역으로 가장 떨어져 있는데, 중국에서 8만리나 멀리 있다. 구라과의 지계(地界)는 남쪽으로 지중해, 북쪽으로 빙해(氷海), 동쪽으로 대내하(大乃河), 서쪽으로 대서양에 이른다. 지중해란 이것이 천지의 가운데에 있는 고로 이름 붙여진 것이다”고 서술해 중국에서 벗어난 확대된 세계관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김만중(1673~1692)은 그의 <서포만필>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이 일부분의 지식에 지나지 않으며, 서양역법의 ‘지구설’(地球說)을 통해 비로소 전체를 알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그가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이이명(1658~1722)은 천원지방설에서 벗어나 마침내 ‘지동설’(地動說)을 역설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이 익(1683~1763)은 세계지도가 서양에서 나왔지만 이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허황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지심론’(地心論:引力)을 주장했다.

마테오 리치가 만든 한장의 지도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얽매어 있던 당시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고 이는 결국 근대화의 시발이 됐던 것이다.●

지도·지리 관련 도서목록

제목	저자·편자	역자	출판사
고구려 발해 지리사	구자일		지문사
공간과 비판사회이론	에드워드 소자	이무용 외	시각과언어
교실 밖 지리여행	노웅희·박병석		세계절
국토와 민족생활사	최영준		한길사
근대지리학의 개척자들	데즈카 아키라	정 암	한울아카데미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이진명		삼인
사진과 지리	한국지리정보연구회		한울아카데미
생활 속의 지리	옥환선 외		강원대출판부
세계를 그린 사람들	루이스 H. 홀만	이경희	동인
세계화 시대의 세계지리 읽기	옥환석		한울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한영우 외		호형출판
지도와 거짓말	마크 몬모니에	손 일·정인철	푸른길
지도의 역사	홍시환		전파과학사
지리이야기	권동희		한울
지리학 강의	한국지리정보연구회		한울아카데미
지리학 원론	한균형		민음사
지리학사	이희연		법문사
지리학의 본질(전2권)	리처드 하트슨	한국지리학회	민음사
청소년을 위한 택리지	이중환	한국과학문화재단	서해문집
콜럼버스 항해록	라스 카사스	박광순	범우사
탐험지도의 역사	R.A. 스킨톤	안재학	새날
택리지	이중환	이익성	을유문화사
한국 고지도 발달사	이상태		혜안
한국의 고지도	이 찬		범우사
한국의 옛지도	영남대박물관		영남대박물관
한국의 지도	국립지리원·대한지리학회		국립지리원
한국의 지도	방동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눈에 보는 한국지리	김길남		내일올여는책
현대경제지리학	박삼옥		아르케
현대인문지리학 사전	존스톤 외	한국지리연구회	한울아카데미
홀블트의 세계	데즈카 아키라	정 암	한울아카데미